

# 종근당바이오, 보툴리눔 독신 사업 본격화... 수익성 개선 기대

‘티엠버스주 100단위’ 품목허가  
혈액 유래 병원체 감염 최소화  
향후 오송공장 생산규모 확대 예정  
지나해 보툴리눔 독신 매출 줄어

종근당바이오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국내 보툴리눔 독신 시장 후발주자로 경쟁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바이오는 지난 3월 31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티엠버스주 100단위’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티엠버스주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제제로, 적응증은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이다. 제조 과정에서 비동물성 원료와 비동물성 첨가제를 사용해 혈액 유래 병원체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동물성 성분에 민감한 환자를 비롯해 비건환자까지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할



티엠버스주

/종근당바이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근당바이오는 지난해 5월 티엠버스주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1년여 만에 보툴리눔 독신 의약품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종근당바이오는 일찍이 지난 2019년 6월 유럽 소재 연구기관에서 출제가 명

확한 보툴리눔 독소 A형 균주의 상용화 라이선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해당 균주를 활용해 자체 개발에 착수했고, 티엠버스주는 미용 목적으로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임상 1상과 임상 3상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도

티엠버스주는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다.

지나해 3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아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상업화 되는 경우, 종근당바이오는 보툴리눔 독신의약품 수출국 범위를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티엠버스주는 충북 오송에 위치한 보툴리눔 독신 전용 공장에서 생산된다.

종근당바이오 오송공장은 연면적 1만3716㎡ 규모로 미국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수준의 최첨단 설비를 갖췄다. 해당 시설의 보툴리눔 독신 생산 능력은 연간 600만 바이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근당바이오는 향후 연간 1600만 바이알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오송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보툴리눔 독신 완제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이다. 해당 제품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제제인데, 브랜드

명은 ‘타임버스주’다. 별도 임상시험이 나 품목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부 국가에 제한적으로 수출되어 왔다.

한편, 종근당바이오의 보툴리눔 독신 사업 매출은 지난 2024년 4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5.8% 감소했다. 영업손실도 3.6% 줄어 104억원이다. 또 전체 매출 대부분이 수출 매출로 해당 규모는 45억원 수준이다. 종근당바이오 이번 국내 품목허가를 성장기반으로 수익성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확보뿐 아니라 단백질 분리, 독소 정제,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등은 제품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라며 “원료, 기술력, 생산 역량 등에서 고무 경쟁력을 높여 온 만큼, 향후 발매가 본격화되면 생산 가동률 증대와 함께 보툴리눔 독신 사업부가 보다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

## 국내 최대규모 ‘베이커리 전시회’ 열린다

2025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오늘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150개사 참여... 네트워킹 자리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베이커리 전문 전시회 ‘2025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가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다.

코엑스, (사)대한제과협회,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는 ‘베이커리 라이프 스타일, 문화를 선보인다(Inspire Baking life)’를 주제로 진행된다. 150개사 300부스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원부재료부터 베이커리 완제품까지 베이커리 매장에 필요한 품목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베이커리 산업을 대표하는 명장들과 미래의 제과기능장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는 올해 새롭게 ‘하우스 오브 파티시에(House of Patisserie)’ 특별관을 조성했다. 국내 트렌디한 베이커리와 디저트 완제품을 판



2025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포스터. /코엑스

매하는 업체가 참여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테이스트 오브 서울(Taste of Seoul)’ 특별관에서는 ‘2024 서울미식주간’의 미식 큐레이터와 전문가가 인정한 디저트 맛집 6개 업체 ▲1994SEOUL ▲김씨부인 ▲메종엠 ▲재인 ▲제이엘 디저트바 ▲강정이 넘치는 집이 참

여한다.

베이커리를 소재로 한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브레드이발소 부스를 연다. 밤 식빵으로 유명한 패스트리 맛집 ‘르빵(Le Pain)’과 협업해 만든 ‘브레드이발소 빵’을 만나볼 수 있다.

‘베스킨라빈스 카페테리아’도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베스킨라빈스의 이달의 맛 아이스크림과 카페 음료를 선보인다. ‘가루쌀 작곡전시장’에서는 쌀가루를 활용해 만든 제과 제빵 제품도 만나볼 수 있다. 크림 치즈의 혁신을 보여주는 ‘웨스크림 크림치즈 신제품 개발 경연 대회’, 2026년 베이커리 월드컵 참가 자격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전인 ‘2025 베이커리 월드컵 국가대표 선발전’ 등도 진행된다.

한편,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입장권 소지자는 동기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커피엑스포’에도 입장할 수 있어 베이커리, 디저트 산업과 커피 산업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카카오스타일, 지난해 매출 2000억 돌파

5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패션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매출액 2000억원을 넘어섰으며, 5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뤘다고 1일 밝혔다.

카카오스타일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2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억원, 당기순이익은 3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또, 카카오스타일의 지난해 거래액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몇 년간 이어진 비용 구조 효율화가 영업이익의 창출로 이어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로 카카오스타일은 지난 2022년 518억원이던 영업손실을 2023년 198억원으로 줄였다. 여기에 거래액과 매출 등 외형 성장과 수익 개선을 동시에 이루며, 지난해 예비타(상각 전 영업이익) 약 80억원을 달성했다.

구매자 수도 상승세다. 지난해 지그재그 신규 구매자 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전체 구매자 수 또한 전년 대비 20% 상승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월 400만~500만 명 수준이던 지그재

그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7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카카오스타일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개인화 추천, 패션·뷰티·라이프 영역의 상품 다양화, 고객별 최적화 마케팅 등이 실적 개선에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패션 업계 대표 빠른 배송 서비스인 ‘직진배송’의 확장이 1030 여성 고객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카카오스타일은 올해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전 연령대 패션, 뷰티, 라이프 분야의 고객 빅데이터와 플랫폼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이재선 기자 wotjs4187@

## 힐라홀딩스, ‘미스토홀딩스’로 사명 변경

# MISTO

지난달 주주총회서 안건 의결  
글로벌 기업으로 정체성 재확립

힐라홀딩스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미스토홀딩스’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던 기존 이미지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다.

미스토홀딩스는 그동안 스포츠 브랜드 힐라를 비롯해 중화권 사업을 담당하는 중국 법인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며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다. 하지만 힐라홀딩스라는 사명이 ‘힐

라’ 브랜드와 직접 연결돼 있어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이 외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미스토홀딩스는 외부의 시각과 요구를 반영해, 모든 산하 계열사와 브랜드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사명 변경을 단행했다. 사명 변경과 관계없이 힐라를 비롯한 미스토홀딩스 산하 모든 브랜드는 기존과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새로운 사명인 ‘미스토’는 조화와 다양성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다양한 가능성을 연결하고 창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편, 미스토홀딩스는 사명 변경에 맞춰 새로운 기업 색상과 로고를 개발하고, 기업 공식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했다.

/안재선 기자

## 라네즈, 7년 만에 ‘크림 스킨’ 신제품 선보

독자성분 ‘징크펩 콤플렉스’ 담아  
토너 제형으로 유수분 균형 조절

아모레퍼시픽은 기능성 뷰티 브랜드 라네즈에서 신제품 ‘크림 스킨 징크펩 토너&젤 모이스처라이저’ (사진)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라네즈는 브랜드 대표 제품군 ‘크림 스킨’에서 7년 만에 신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라네즈 독자 성분인 징크펩 콤플렉스 성분을 새롭게 담았다. 이 성분은 징크와 이중 펩타이드 성분을 결합한 것으로 피지 관리, 피부 탄력 등을 관리해 준다.

또 ‘크림 스킨 징크펩 토너&젤 모이스처라이저’는 특별한 제형 기술을 구현한 제품이다. 고압 블렌딩 기술을 적용해 토너 속 미세하게 쪼개진 젤 크림 성분의 안정성을 높였다. 그 결과, 토너 제형으로 발라도 젤 크림의 유효 성분

이 피부에 빠르게 전달된다.

라네즈는 글로벌 화학연구센터에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해 해당 제품 사용 즉시 유수분 균형이 59.32% 강화되고, 피지분비량은 45.34%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4주 사용 후에는 모공 부피가 36.05% 개선됐다. 하이포알러지 테스트도 통과했다.

이와 관련 라네즈 관계자는 “수분감 가득한 젤 크림을 토너에 담아, 무게감과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피부 유수분 균형을 조절할 수 있어 수분부족지성, 지성 피부 등에도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